



보도	2025.1.24.(금) 석간	배포	2025.1.23.(목)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50)
		담당자	선 임	김태운 (02-3145-8052)

## '24.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1. 개 요

□ '24.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2%**로 전월말(0.48%)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46%) 대비 **0.06%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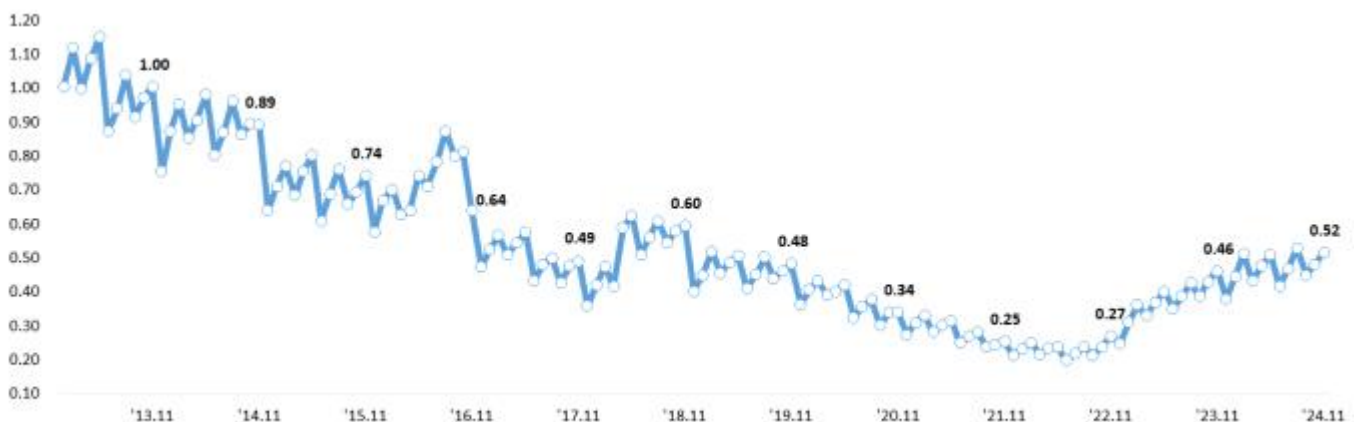
○ '24.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8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는 전월 대비 각각 **0.3조원 증가**(전월 신규연체 2.5조원, 정리규모 1.7조원)

	(22.11월)	(23.11월)	(24.6월)	(24.7월)	(24.8월)	(24.9월)	(24.10월)	(24.11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1.4	2.7	2.3	2.7	3.0	2.5	2.5	2.8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0.8	2.0	4.4	1.5	1.4	4.3	1.7	2.0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0.6	0.7	△2.1	1.2	1.6	△1.8	0.8	0.8

○ '24.11월중 신규연체율('24.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12%)과 유사]

\* 신규연체율(%): ('23.11) 0.12 → ('24.7) 0.12 → ('24.8) 0.13 → ('24.9) 0.10 → ('24.10) 0.11 → ('24.11) 0.12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13.11월~'24.11월)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4.11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말(0.56%)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52%) 대비 0.08%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03%)은 전월말(0.04%) 대비 0.01%p 하락 [전년 동월말(0.18%) 대비 0.15%p 하락]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5%)은 전월말(0.70%)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61%) 대비 0.14%p 상승]
    - 중소기업인 연체율(0.78%)은 전월말(0.74%)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64%) 대비 0.14%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1%)은 전월말(0.65%)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56%) 대비 0.15%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41%)은 전월말(0.38%)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39%) 대비 0.02%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말(0.25%)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25%) 대비 0.02%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2%)은 전월말(0.76%)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76%) 대비 0.06%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12월~'24.11월)	'22.11월	'23.11월 (A)	'24.8월	'24.9월	'24.10월 (B)	'24.11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29	0.52	0.62	0.52	0.56	0.60	0.08	0.04
대기업		0.07	0.18	0.05	0.04	0.04	0.03	△0.15	△0.01
중소기업		0.34	0.61	0.78	0.65	0.70	0.75	0.14	0.05
중소법인		0.40	0.64	0.84	0.68	0.74	0.78	0.14	0.04
개인사업자		0.26	0.56	0.70	0.61	0.65	0.71	0.15	0.06
가계대출		0.24	0.39	0.40	0.36	0.38	0.41	0.02	0.03
주택담보대출		0.14	0.25	0.26	0.25	0.25	0.27	0.02	0.02
가계신용대출등		0.49	0.76	0.82	0.69	0.76	0.82	0.06	0.06
원화대출계		0.27	0.46	0.53	0.45	0.48	0.52	0.06	0.04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11월말 연체율(0.52%)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중 신규연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월말 대비 0.04%p 상승

* 구 분	'23.1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4.10	'24.11
연체율	0.38	0.45	0.51	0.43	0.48	0.51	0.42	0.47	0.53	0.45	0.48	0.52
전월 변동	△0.08	+0.07	+0.06	△0.08	+0.05	+0.03	△0.09	+0.05	+0.06	△0.08	+0.03	+0.04

※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 등으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는 코로나 이전('19.11월 0.48%)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음

\* 코로나19 이전 10년('10년~'19년) 평균 연체율은 0.78%

-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취약부문에 대한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